

INVITATION

한국의 단색화와 엔틱
Korea's monochrome and antique

베르사이유궁에서 부산으로 - 베르나르 브네 -
From the Versailles Palace to Busan
Bernar Venet

2015. 4. 1(Wed) - 4. 5(Sun)
Exhibition Hall 3 BEXCO BUSAN



베르사이유궁에서 부산으로

베르나르 브네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미술가로 지난 40여년간 조각, 회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활동을 해왔다. 그는 미술의 목적을 아름다움이 아닌 지식을 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베르나르 브네는 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하고 장식적 시도를 거부하며 수학에 심취하여 수학적 표현들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한계를 극복하며 확장해가고 있다. 2012년 베르사이유궁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특별 제작된 작품 중 23.5ARCx4 3점이 전시된다.

Contact
Tel. 051-754-7405
E-mail. bsgalleries@hanmail.net

한국의 단색화와 엔틱

한국현대미술의 변혁을 주도하였던 '단색화'는 그동안 미술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국내외 해외에서 독자적 미술 양식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하면서 미술시장에서도 재평가받고 있다. 현재 한국 미술시장의 거래 현장에서 핵심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에 한국의 전통적 엔틱가구와 조화를 이루어 선보이게 된다. 전통적 기법으로 조형미의 가치를 국내외에서 평가받고있는 한국의 가구는 쓰임새는 물론 조형미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고유성을 갖춘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고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가구와 색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가치 재발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상화_무제_91-10-25_Frottage_on_Canvas_193.5x258.5cm_1991



원형 주철 흑칠 호족반 32.2x54cm_조선 19세기
상판은 원형으로 다리형태는 안으로 굽은 호족형의 소반이다